


<div data-bbox="148 170 448 262">  </div>	<div data-bbox="539 199 624 230">과목명</div> <div data-bbox="683 190 1066 244">한문문제풀이(33회)</div>	<div data-bbox="1177 199 1292 230">한문시험</div>	<div data-bbox="1390 183 1474 246">감독관 확인</div>
--	--	---	---

시행 : 12월 24일(토)		수험 번호	성 명		인
문항/ 시간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1번~03번)

客有病痞，積於其中者，伏而不能下，自外至者，捍而不得納。從醫而問之，曰非下之不可，歸而飲其(㉠)，既飲而暴下，不終日而向之伏者散而無餘，㉡向之捍者柔而不支，焦鬲導達，呼吸開利，快然若未始有疾者，不數日，痞復作，投以故藥，其快然也亦如初。自是不逾月而痞五作五下，每下輒愈，然客之氣一語而三引，體不勞而(㉢)，股不步而(㉣)，膚革無所耗於前，而其中茶然，莫知其所來，嗟夫。心痞非下不可已，予從而下之，術未爽也，茶然獨何歟。

01. ㉠에 알맞은 글자는?

- ① 水

② 藥
- ③ 油

④ 茶
- ⑤ 乳

02. ㉡의 뜻은?

- ① 오히려

② 이전에
- ③ 더구나

④ 향하여
- ⑤ 높여서

03. ㉢과 ㉣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 ① 疲, 痛

② 疲, 慄
- ③ 慄, 疲

④ 汗, 慄
- ⑤ 疲, 汗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4번~07번)

聞楚之南，有良醫焉，往而問之，醫曰，子無歎是然者也。凡子之術，固爲是㉠茶然也。坐吾語女。天下之理，有甚快於予心者，其末必有(㉡)，求無(㉢)於終者，則初無望於快吾心。夫陰伏而陽蓄，氣與血不運而爲痞，橫乎子之胸中者，其累大矣，擊而去之，不須臾而除甚大之累，和平之物，不能爲也，必將擊搏震撓而後可。夫人之和氣，冲然而甚微，泊乎其易危，擊搏震撓之功未成，而子之和蓋已病矣。由是觀之，則子之痞凡一快者，子之和一傷矣，不終月而快者五，則子之和平之氣，㉣不既索乎。故膚不勞而汗，股不步而慄，茶然如不可終日也。蓋將去子之痞而無害於和乎，子歸㉤燕居三月而後，予之藥可爲也。

04. ㉠의 독음은?

- | | |
|-----|-----|
| ① 날 | ② 다 |
| ③ 달 | ④ 찰 |
| ⑤ 차 | |

05. 문맥상 ㉡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 | | |
|-----|-----|
| ① 喜 | ② 聖 |
| ③ 傷 | ④ 死 |
| ⑤ 塞 | |

06. ㉢의 문장을 해석 하시오.

07. ㉣의 의미는?

- | | |
|-----------------|-------------|
| ① 잔치하며 지내는 것 | ② 편안히 지내는 것 |
| ③ 늘어져 지내는 것 | ④ 힘써 일하는 것 |
| ⑤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번~11번)

客歸燕居三月，齋戒而復請之，醫曰，子之氣小復矣，取藥而授之曰，服之三月而病少平，又三月而少康，終是年而復常。且飲藥，㉠不得亟進。客歸而行其說，然其初，使人憑然遲之，蓋三投藥而三及之也。然日不見其所攻之效，較則月異而㉡時不同，蓋終歲疾平。客謁醫，再拜而謝之，坐而問其故，醫曰，是㉢醫國之說也，豈特醫之於疾哉。子獨不見夫(㉣)之治乎。民悍而不聽令，惰而不勤事，放而不畏法，令之不聽，治之不變，則(㉣)之民，嘗瘡矣。商君見其瘡也，厲以刑法，威以斬伐，悍戾猛鷙，不貸毫髮，痛㉤剗而力㉥鋤之，於是乎(㉣)之政，如㉦建瓴，流蕩四達，無敢或拒，而(㉣)之瘡，嘗一快矣。自孝公，以至二世也，凡幾瘡而幾快矣乎。頑者已圯，强者已柔，而(㉣)之民，無歡心矣。故猛政一快者，懼心一亡，積快而不已，而(㉣)之四支枵然，徒有其物而已。民心日離而君孤立於上。故匹夫大呼，不終日而百病皆起，(㉣)欲運其手足肩臂，而漠然不我應矣。故(㉣)之亡者，是好爲快者之過也。

08. ㉠의 문장을 해석하시오.

09. ㉡의 뜻은?

- | | |
|--------|--------------|
| ① 때마침 | ② 때때로 |
| ③ 농한기에 | ④ 한 철을 두고 보면 |
| ⑤ 농번기에 | |

10. ㉢의 품사로 알맞은 것은?

- | | |
|-------|------|
| ① 명사 | ② 동사 |
| ③ 형용사 | ④ 부사 |
| ⑤ 접속사 | |

11. 문맥상 ㉣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 | | |
|-----|-----|
| ① 秦 | ② 漢 |
| ③ 周 | ④ 宋 |
| ⑤ 楚 | |

12. ㉠과 ㉡의 독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적은 것은?

- | | |
|--------|--------|
| ① 잔, 서 | ② 전, 서 |
| ③ 적, 조 | ④ 잔, 조 |
| ⑤ 전, 조 | |

13. ㉢建瓴을 해석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번~16번)

昔先王之民，其初亦嘗瘡矣，先王豈不知㉠嗟然擊去之以爲速也，惟其有懼於終也。故不敢求快於吾心，優柔而撫存之，教以仁義，導以禮樂，陰解其亂而除去其滯，使其悠然自趨於平安而不自知，方其未也，㉡旁視而慙然者有之矣，然月計之，歲察之，前歲之俗非今歲之俗也。不擊不搏，無所忤逆，是以日去其戾氣，而不嬰其歡心。於是政成教達，安樂悠久而無後患矣。是以三代之治皆更數聖人，歷數百年而後俗成，則予之藥終年而愈疾，蓋無足怪。故曰，天下之理，有甚(㉢)於吾心者，其末也，必有傷，求無傷於其終，則初無望於(㉣)吾心，雖然豈獨於治天下哉。客再拜而記其說。

14. ㉠의 독음은?

- | | |
|-----|-----|
| ① 갈 | ② 개 |
| ③ 해 | ④ 할 |
| ⑤ 획 | |

15. ㉡을 해석하시오.

16. ㉢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 | | |
|-----|-----|
| ① 病 | ② 瘡 |
| ③ 快 | ④ 和 |
| ⑤ 安 | |

※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글자 또는 ()에 알맞은 한자를 쓰시오. <明心寶鑑>

17. 濂溪先生曰, 巧者言拙者默, 巧者勞拙者(), 巧者賊拙者德, 巧者凶拙者().
嗚呼, 天下拙, 刑政撤, 上安下順, 風清弊絕。

18. 易曰, 德薄而位尊, 智小而謀大, 無()者, 鮮矣。

19. 說苑云, 官怠於宦成, 病加於小ㄹ, 禍生於懈惰, 孝衰於妻子, 察此四者, 慎終如始。

① 喻

② 愈

③ 兪

④ 逾

⑤ 猶

20. 尺璧非寶, 초음是競。

21. 羊羹雖美, 衆口難()。

22. 入山擒虎易, 開()告人難。

23. 遠水不救近火, 遠親不如近()。

24. 太公曰, 日月雖明, 不照覆盆之下, 刀劍雖快, 不斬無罪之人, 非災橫禍, 不入()家之門。

25. 太公曰, 良田萬頃, 不如薄()隨身。

26. 性理書云, 接物之要, 己所不欲, 勿施於(), 行有不得, 反求諸()。

27. 子曰，立身有義而()爲本，喪紀有禮而哀爲本，戰陣有列而()爲本，治政有理而農爲本，

28. 居國有道而()爲本，生財有時而()爲本。

29. 景行錄云，爲()之要，曰公與清。成()之道，曰儉與勤。

30. 讀書起家之本，循()保家之本，勤儉治家之本，和()齊家之本。

31. 孔子三計圖云，一生之計在於()，一年之計在於()，一日之計在於()。幼而不學，老無所知，春若不耕，秋無所望，寅若不起，日無所辦。

32. 性理書云，五教之目，父子有親，君臣有義，()婦有()，長幼有()，朋友有信。三綱，君爲臣綱，父爲子綱，()爲婦綱。

33. 王蠋曰，忠臣不事二()，烈女不更二()。

34. 忠子曰，治官莫若()，臨財莫若()。

35. 張思叔座右銘曰，凡語必忠信，凡行必篤敬，飲食必慎節，字劃必楷正，容貌必端莊，衣冠必肅整，步履必安詳，居處必正靜，作事必謀始，出言必顧行，常德必固持，然諾必重應，見善如()出，見惡如()病，凡此十四者，皆我未深省，書此當座隅，朝夕視爲警。

36. 范益謙座右戒曰，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三不言衆人所作()之事，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又曰，一人付書信不可開拆沈滯，二與人并座不可窺人私書，三凡入人家不可看人文字，四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五凡喫飲食不可揀擇去取，六與人同處不可自擇便利，七凡人富貴不可歎羨詆毀，凡此數事有犯之者，足以見用心之不肖，於存心修身，大有所害，因書以自警。

- 범익겸의 좌우계에 이르기를, 첫째, 조정의 이해(利害), 변방의 보고(報告)와 벼슬자리에 파견되고 제수되는 것을 말하지 말라. 둘째, 주현(州縣) 관원(官員)들의 장단(長短)이나 득실(得失)을 말하지 말라. 셋째, 못사람들이 짓는 바, 과실과 악행의 일들을 말하지 말라. 넷째, 관직에 벼슬하여 나아가고, 또는 시세를 쫓고 부합한다는 등 말하지 말라. 다섯째, 재물의 이익이 많고 적음과 가난을 싫어하고 부(富)를 구한다는 등 말하지 말라. 여섯째, 음란하며 외설적이고 희롱하며 업신여기는 것과 여색을 논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일곱째, 남의 물건을 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구하는 말을 하지 말라.

또 이르기를, 첫째, 남이 부친 서신을 함부로 뜯거나 또는 전달하지 않고 묵혀 두어서는 안된다.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앉아서 남의 개인적인 편지를 엿보아서는 안된다. 셋째,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남이 사사로이 적어 놓은 글자들을 보아서는 안된다. 넷째, 무릇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는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다섯째, 무릇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가리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여섯째, 남과 같이 처할 때는 편리를 스스로 가려서는 안된다. 일곱째, 무릇 남의 부귀를 감탄하여 부러워하거나 홍보고 혈뜬어서는 안된다. 무릇 이 여러가지 일들을 범하는 자는 마음 씩씩이가 불초(不肖)하여 존심(存心)과 수신(修身)에 해로운 바가 크게 있음을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글을 써서(以) 스스로 경계하노라.

37. 武王問太公曰，人居世上，何得貴賤貧富不等，願聞說之，欲知是矣。
太公曰，富貴如聖人之德，皆由天命，富者用之有()，不富者家有十盜。

38. 武王曰，何爲十盜。太公曰，時熟不收爲一盜，收積不了爲二盜，無事燃燈寢睡爲三盜，慵懶不耕爲四盜，不施工力爲五盜，專行巧害爲六盜，養女太()爲七盜，晝眠懶起爲八盜，貪酒嗜慾爲九盜，強行嫉妬爲十盜。

39. 武王曰，家無十盜，不富者，何如。太公曰，人家必有三耗。
武王曰，何名三耗。太公曰，倉庫漏濫不蓋，鼠雀亂食爲一耗，收種失()爲二耗，拋撒米穀穢賤爲三耗。

40. 武王曰，家無三耗，不富者，何如。太公曰，人家必有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六不祥七奴八賤九愚十強，自招其()，非天降()。